

GGM 퇴근 4시 30분

〈오후〉



소비자 대기 시간 1년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 갈등에 교대 근무 못해 공장 문 일찍 닫아
캐스퍼 35만대 생산 목표 차질 ... 소비자 오랜 대기에 구매 포기도

#1.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갑시다!”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 광주시 광산구 빛그린 산단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정문 앞으로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오전 7시 30분부터 이어진 근무 시간이 끝나자 직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다른 완성차 공장은 교대 근무에 한창일 시간이었지만, 오후 4시 50분이 넘어가자 공장 안팎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적막 속에 잠겼다.

#2. 같은 날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김혜린(여·31)씨는 캐스퍼를 구매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가솔린은 14개월에서 22개월, 전기차는 13개월에서 2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공지를 보고 구매를 포기했다.

전국 최초의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출범한 GGM이 장기화된 노사 갈등 속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과 교대제 도입 문제를 둘러싼 내부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GGM은 생산 효율 저하, 공급 지연, 수주 불확실성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GGM에 따르면 누적 생산 목표 35만대 생산 전까지 임금과 근로 여건 등을 노사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노조 설립과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노조 반대로 2교대 근무 체제가 도입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도 단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8시간 근무 체제다.
GGM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위탁받아 캐스퍼(내연기관·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교대제가 없어 생산량이 제한돼 내수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출범 초기 5만대(가솔린)로 설정됐던 내수 목표 물량은 올해 1만 3000여대(가솔린 9100대·전기 4800대)로 예상되고 있다.
내수 물량 축소는 캐스퍼가 유럽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며 수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교대 근무 부재로 내수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노조원을 제외한 다수의 직원들은 교대 근무 부재와 반복되는 특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회사 설립 목적에 반하는 노조 활동으로 인해 경영이 흔들리는 데다 교대 근무가 없어 화·목요일 연장 근무와 한 달에 세 번의 토요일 특근까지 이어지는 현실에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5년 차 A씨는 “급여나 복지 등 GGM 설립 당시 약속했던 것에 못 미치는 것들이 있어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교대제 부재에 따른 생산 차질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2년 차 B씨는 “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직원도 있었고, ‘노조가 안 생겼으면 이미 2교대로 전환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목표 대수를 달성하면 임금 협상 등 직원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 노조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GGM 안팎에서는 노사 갈등과 이어진 대기 물량 등 당면 과제를 넘지 못하면 노·사·민·정의 약속으로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는 결국 ‘실패’로 남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GGM 관계자는 “캐스퍼의 국내의 수요는 충분한데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해 소비자들이 경쟁 차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2교대 전환을 통해 누적 생산 35만대까지 자체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2교대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생산 물량이 확정되면서 2교대 논의가 이뤄졌지만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과 파업 결의로 중단됐다”며 “올해 내수 물량 계획이 지난해 4만 2000여대에서 1만 3900대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고객사인 현대차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GGM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GGM 취업 규칙상 2교대로 전환했다가 생산량에 못 미치면 직원들이 무급 휴직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일단 특별팀(TF)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며 “올 들어 주문 대기 물량과 예상 생산 물량이 2교대 전환의 최소 물량(7만대 이상)을 웃돌면서, 최근 현대차 본사를 찾아 2교대 전환을 요구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밤의 119 공공심야약국 - 참여 저조 왜? ▶6면

굿모닝 예향 - 순천 로컬 브랜드 ▶19면

KIA 타이거즈 전망대 - 7월, 더 뜨거워진다 ▶22면



광주글로벌모터스 직원들이 지난 30일 퇴근 시간인 오후 4시 30분이 되자 공장 정문을 나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내년 쉬는 날 118일 설 연휴 5일간 쉰다

주 5일제 근로자들은 내년 쉬는 날이 올해보다 하루 적은 118일이다.
내년 가장 긴 연휴는 설날과 토요일을 합한 5일이며 공휴일은 올해보다 이를 늘어난 70일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일요일 52일에 국경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 20일이 더해져 공휴일이 72일이 되나, 3·1절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공휴일 수는 70일이다.
주 5일제 실시 기관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70일과 토요일 52일이 더해져 휴일 일수가 122일이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하면 휴일 총일수는 118일이다.
주 5일제 기관 3일 이상 연휴는 총 8번이다. 설 연휴(2월 14·18일)가 토요일을 합쳐 가장 길고 추석 연휴(9월 24·27일)는 일요일을 합쳐서 나흘이다.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내에 지급”

김민재 행안차관 “TF서 준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3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안에 가급적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김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이 7월 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2주 이내에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발행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1차(추경)때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방에 도움을 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도 나름 지원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4000억원을 편성해 집행한 바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온 2차 추경안을 통해서도 6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전체 지역

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규모가 1조원이 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를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만약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정책위는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